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영어 교육

하광호

뉴욕주립대 영어교육학 교수

1. 들어가기

미국에서의 “영어 교육의 교육 과정”과 “지도의 내용”은 지방의 특색들을 존중하는 의도로 각 주의 주 정부에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교육 과정이다” 하고 확실적인 모습을 내보일 수가 없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그 핵심에 흐르고 있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그것이 미국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영어 교육의 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공통분모는 초·중등 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 만든 미국 대학들의 교육 과정과 그 목표 그리고 미국 국내에 있는 “전국 영어 교수·교사 협회”와 국제기구인 “국제 읽기 협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에서 초안하여 내놓은 영어 교육 과정의 “기준”에서 찾을 수가 있다. 미국 50 주들의 교육 과정의 모체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다만 실천 방법들에서 각 주의 특색들이 나타나 있을 따름이니 그 모체를 살펴보면 미국의 국가 교육 과정을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영어 교육의 목표, 교육 과정의 기준을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2. 언어 교육의 목표

미국의 언어 교육(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낱말은 모두 미국의 영어를 가리킨다)의 목표를 살펴 보자.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언어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1) 끊임없는 독서와 글 쓰기를 하여 자기 생활의 보람과 만족감을 맛보며 인생의 의미를 증대시킨다. 독서와 글쓰기가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며 타인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2) 그들은 자기 자신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남이 쓴 이야기들을 듣고 읽거나 자신이 직접 시를 쓰고 저널(journal)을 쓰면서 자기 생활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배우게 된다.

(3)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도구”로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구술 언어와 문자 언어는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꾸미며 영위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정보를 찾아 받아들이며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이다.

(4) 효과적으로 말을 하고, 들으며, 읽고 또한 글을 쓸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언어 사용자가 된다. 남이 쓴 글을 읽고 독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고 들으며, 자기 자신의 인생 체험과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글을 해석할 수가 있다. 글을 읽는 동안 만나는 낯선 낱말들이나 개념들의 의미를 자기의 힘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전략을 소유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한다. 남이 쓴 글들을 읽어 완전한 이해와 감상을 함과 동시에, 수필, 허구 작품, 시 그리고 다양한 목적과 독자들을 겨냥한 “정보를 위한 글들”을 자기의 힘으로 쓸 수 있다.

(5) 독자들은 필자가 독자를 조종하고 통제할 의도로 쓴 언어를 알아차리며, 그와 같은 필자의 공략에 반응하거나 대항하기 위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언어 사용 과정에 관하여 정통한 “언어이론가”까지 될 수 있다. 자기가 쓰는 글 속에서 노리는 영향력을 창조해 내는 기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이며, 남의 글을 읽을 때에도 뚜렷한 “읽기 목적”을 가지고 “읽기 과정”을 세밀히 살필 수 있다. 자기들이 하는 언어 활동을 스스로 평가할 줄 알며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며 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속하는 당당한 일원이라는 긍지를 갖는다.

(6)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감상하고 존중할 줄 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그들이 평소에 읽은 여러 문헌들이나 문학 작품들에서 배우고 느낀 것이다.

3. 언어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은 지방 단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지만, 언어 교육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교육 과정 지침으로 널리 추천하고 있는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언어 교육 과정은 이미 정립된 건전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외에 있는 사계의 권위자들의 뚜렷한 “연구의 증거”가 없이 생기는 교육 과정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언어 교육 과정은 반드시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의 지적·신체적 발달 수준, 흥미, 체험 등이 교과 과정의 형태와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언어 교육 과정은 언어 생산(말하기, 글 쓰기)과 언어 사용 과정의 양면을 강조하며 생산과 과정이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자기의 언어로 생산해 내는 결과를 기다리지만 말고 생산할 때까지의 과정을 깊이 살피면서 학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4) 언어 교육 과정은 다른 교과목들과 통합된 것이라야 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글 쓰기의 기법들을 다른 모든 학과목들(수학, 과학, 사회생활, 미술, 음악, 체육)에 응용해야 한다. 언어 교육 과정을 다른 학과의 교육 과정과 결합시키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육자들이 염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5) 언어 교육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학습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평가의 큰 목적은 바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학습 평가는 학습 지도 목표와 들어맞아야 한다.

이제 “국제 읽기 협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와 “전국 영어 교수·교사 협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가 공동으로 발표한 영어 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겠다. 이 표준을 미국의 각 주에서 영어 교육 과정과 수업 방법의 모체로 삼고 있다.

(1) 학생들은 읽는 서적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미국과 세계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며, 자기가 사는 사회와 직장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기 스스로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폭넓은 독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인류가 걸어온 여러 분야(철학적, 윤리적, 미학적 분야)의 발자취들을 이해하고 음미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다양한 장르별로 폭넓은 문헌들을 읽어야 한다.

(3) 읽는 자료들을 독해하고 해석하며 평가하고 감상하기 위한 폭넓은 기법들과 전략들을 응용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경 체험들이며, 다른 독자들들과 필자들과의 상호 접촉, 어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미, 다른 자료들에서 얻은 지식, 자신의 독해 전략, 문자와 소리와의 관계, 구문, 문맥 등에 대한 자신의 이해력에 의지함으로써 읽기의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

(4) 자기가 상대하는 청중, 독자들의 성분과 여러 다른 목적들에 따라, 말하기, 글 쓰기의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학생들은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만나는 다양한 독자들과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폭넓은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6) 읽는 것을 비평하고 독서 후에 토론을 하며 또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해서 학생들은 언어 구조, 지켜야 할 문법적 규칙, 비유적인 언어, 모든 장르에 관한 지식을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7) 학생들은 당면한 문제들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제들을 제기해야 한다. 그들은 다양한 출처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를 종합하며 자기들의 목적에 맞고 청중과 독자들에게 알맞은 의사소통을 성공시켜야 한다.

(8) 필요한 정보들을 구하며 그 정보들을 종합시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비디오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9) 자기와 다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 사용의 다양성, 이질적인 문화로 인한 방언들, 민족적 특징, 지리적 특징, 사회적 지위의 차이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0) 영어가 모어가 아닌 학생들은 자기들의 모어를 활용하여 영어 사용의 능력을 속히 높이고 다른 모든 학과목들의 학습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11) 학생들은 언어를 통해 배우는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의 지식을 활용하고, 자기가 속하는 언어 사회의 보람 있는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12) 학생들은 자기 자신들의 여러 목적들(학습, 즐거움, 설득, 정보 교환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술 언어, 문자 언어, 시각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학년별(연령별) 언어 교육의 현황

위에서 밝힌 언어 교육 과정과 언어 사용의 지도 방침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각급 학교들의 현황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자.

유치원 이전의 수준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공통분모들을 먼저 언급하고 각급 학교마다의 특색들을 포함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한국의 독자들이 명심해 줄 점은 미국의 연방 정부(중앙 정부) 교육부는 교육 과정이나 지도 내용에 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주 정부에 일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 정부 교육부가 맡고 있는 분야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어 교육에서 교육 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이전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들은 모두 언어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목들의 내용에 걸쳐 1년에 최소한 25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분량의 독서를 하며, 유치원 이전, 유치원, 초등 1 학년을 제외한 초등 2 학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1000자 또는 그 이상의 분량으로 역시 모든 교과목의 내용을 소재 또는 주제로 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또한 청취 능력과 화술을 연마하기 위해 교사의 학습 지도안(Lesson Plan)에 의해 듣고 말하기에 힘을 쓰고 있다.

(2) 영어 담당 교사들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학생들의 읽기, 글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서로 책임을 분담한다.

(3) 유치원 이전에서 고등학교 3 학년의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공통적인 본질을 등한시하지 않고 각급 학교의 교사들은 자기의 수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4)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목표하는 언어 교육의 성공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교사들은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5) 언어 교육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현대 기술(technology)과 기타 자원들을 주 정부, 지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6) 학생들의 개인차에서 비롯하는 필요성을 파악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기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7) 학생 중심의 수업이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은 피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자들이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8) 영어 교육 과정은 PreK~1 학년(유치원 이전(Pre-Kindergarten)에서 초등 1학년), 초등 2~4 학년, 5~6 학년(한국의 초등 5~6 학년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5~6 학년이 중학으로 불리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7~8 학년(한국의 중 1~중 2에 해당), 9~12 학년(한국의 중 3~고 3에 해당)으로 분류한다.

(가) PreK~1 학년(유치원 이전부터 초등 1 학년까지): 이 시기의 영어 교육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책으로 시작하여 문자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책 속에 있는 인쇄된 문자들과 그림들을 구별할 줄 알며, 모음들과 자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기르도록 애를 쓰는 것이 읽기(독해) 분야의 핵심이다. 쓰기의 시초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출발하여 사람의 이름, 장소·사물의 이름들을 쓸 수 있도록 주력을 하며, 마침내는 자기가 몸소 겪은 일들을 이야기로 쓸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듣기, 말하기의 능력 발전을 위해 매일 집단적으로 하는 토의·토론을 비롯하여 자기가 읽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자기가 쓴 글을 서로 나누어 읽고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나) 2~4 학년: 이 단계부터는 읽기(독해)에서 위인전들을 포함하여 참고 도서, 잡지, 일간 신문들을 읽기 자료로 사용한다.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습 방법에도 많은 주력을 한다. 2~4 학년의 특징으로 책의 구성, 장르별의 특색, 주제를 찾아내는 기법, 정보를 담은 책과 허구 작품의 차이 등까지도 확실히 이해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자기 스스로 읽고 난 후에 독후감을 학급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교사는 적극 장려한다.

글을 쓰는 과정상 이 시기부터 짧은 보고문을 비롯하여 공문서,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편지, 자기가 읽은 책들에 대한 감상문 등을 담은 저널과 자기의 작품집을 만들기 시작한다. 작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여 작문 작업에 실천

하기 시작하는 것도 2~4 학년부터이다. 듣기, 말하기 능력의 발전을 위해서 집단의 토론·토의를 포함하여 교사와의 단독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연극 형식을 빌려 각자의 역할을 표현하기도 한다.

(다) 5~6 학년: 이 단계부터의 읽기(독해) 학습은 이전의 학년에서 쌓은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력으로 정보를 얻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도서관 등へ가서 여러 도서들과 접하는 것으로부터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독서(독해)의 목적을 규명할 줄 아는 고등 사고력을 연마하기 시작하기도 한다. 글 속에 담긴 언어 사용의 차이들, 즉 속어, 구어체, 공식적인 표현, 전자 우편(e-mail)에 쓰는 특수한 문체와 친숙해지기 시작한다. 독서의 성과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이때에 나타나는 특색이기도 하다.

쓰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독후감은 물론이며, 스스로 전자 우편을 쓰기 시작하며, 다양한 종류의 글들, 즉 위로의 문장, 건강 회복을 바라는 편지, 감사의 문장들을 작성하여 학급에서 나누어 토론의 주제를 삼는다. 이때 워드 프로세싱(word processing)의 기법들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기도 한다.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위해서 학우끼리의 대화를 포함하여, 교사와의 회견을 하기도 하고 작품을 읽고 난 후 저자의 문체, 인품, 철학 등을 주제로 하여 학급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사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를 한다.

(라) 7~8 학년: 이 단계에서의 읽기(독해) 분야의 특징은 학술 논문들을 비롯하여 온라인(online), 전자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databases), 웹 사이트(web sites)에 실린 광범위한 독서에서 시작한다. 피동적인 독서에서 스스로의 고등 사고력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류, 데이터 해석과 추리, 여러 출처를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지에 들어간다. 주제에 맞는 정보와 맞지 않는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도 이때 기르기 시작한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이 시기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가 읽는 책의 저자의 권위에 늘

리지 않고 비평적인 안목을 갖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읽는 목적에 따라 독서의 속도를 조정하는 힘을 기르며, 독해의 수준 높은 성취를 위해 저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와 독자의 추리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적인 차이를 음미하는 기법도 기른다. 독해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목과 주제에 기반을 두고 독자 스스로 질문들을 미리 작성하는 작업을 하도록 교사로부터 끊임없는 격려를 받는 것도 이때이다. 글 쓰는 작업에서는 정보를 담은 논문, 신문 기사의 작성, 독서에서 얻은 내용의 요약, 그리고 5 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연구 보고문을 작성하기도 하는 것이 7~8 학년 수준의 특색이기도 하다. 논문 작성을 할 때는 한 곳이 아닌 여러 출처들의 증거를 기록하도록 한다.

논문과 신문 기사문의 서로 다른 문체의 수업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문장 구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법들이나 문법의 정확성에도 교사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 독자의 수준에 따라 어휘나 표현을 조정해야 한다는 작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은 교사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7~8 학년의 쓰기 훈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글 쓰는 목적에 따른 다양한 글들, 즉 설명문, 묘사문, 사실을 열거하는 글, 설득의 글, 저자 자신의 감정·정서를 나타내는 글 등의 특징들을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다.

듣기, 말하기의 발전을 위한 작업으로서는 남의 말을 듣는 동안 성급한 판단을 삼가고 마지막까지 듣는 예의, 말할 때에 보여야 할 적절한 표정, 말씨의 조정, 의미의 명료성, 낱말의 선택 등에 대해 학생들은 정규 수업 중에 훈련을 쌓는다. 또한 듣기의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할 전략 등도 교사는 지도한다.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가 말을 할 때에는 청중의 특징, 즉 나이, 성별, 문화적 전통, 사회적 지위 등을 깊이 고려할 줄 아는 능력과 습관을 기르기도 한다. 청중에 따라 자기의 언어 사용을 조절하는 방법도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운다.

(마) 9~12 학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이 단계에서는 국내에서만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일간 신문, 월간 잡지, 학술 전문지 등을 읽기 자료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닙는 독서(독해) 기법으로서 대강의 정보를 얻기 위한 훑어 읽기, 구체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독 방법 등의 높은 수준의 능력을 기르고 발전시킨다. 8 페이지에서 10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 작성, 논문 작성을 위한 제안, 주제의 선택, 논문에 담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 표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두려운 결과의 예상, 연구 논문의 문체의 특징, 인용하는 정보를 담는 방법 등 여러 기교들에 대해 집중적이며 광범위한 학습을 하는 것도 9~12 학년의 특색이다.

독서에 있어서도 실로 광범위하다. 단편 소설, 장편 소설, 희곡, 시, 학술 논문집, 문학 비평문, 영화 대본 등이 독서의 핵심을 이룬다. 자기가 읽은 작품에 대한 비평문도 쓰기 시작한다. 문체에 반영된 저자의 감정, 정서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연마한다. 문학 작품의 수준 높은 감상을 위해 작품의 구성 요소나 기교, 즉 비유적 언어의 사용, 우화, 풍자, 상징, 의식의 흐름을 깊이 음미하여 작품의 해석과 비평까지도 시도해 본다. 동일한 작품인데도 문자를 사용하여 생산한 작품과 영화, 비디오로 생산한 작품을 비교하여 서로의 장점, 단점을 지적하고 학급 토론의 주제로 삼는다. 시의 특징들이 깃들어 있는 여러 종류, 즉 소네트, 서정시, 엘레지(비가), 설화시, 서사시, 오드(송시) 등을 발표한 저자, 시인들이 자기의 메시지와 의사를 여하히 표현하고 있는가를 심도 깊은 감상을 통해 알아차리고 확인한다. 또한 문학 작품의 장르별 특색들을 정확히 알아내어 자기의 작문 과정에 활용한다.

9~12 학년의 쓰기 작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큰 용기로 단편 소설, 장편 소설의 습작을 시도하는 데 있다. 학교 무대에 올려 놓을 희곡을 쓰고 비디오 대본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간단하나마 자서전을 써 보기도 한다. 소설 습작을 위해서 등장인물들의 창조, 이야기의 줄거리 구성, 배경 설정, 작중 인물들끼리의 대화문 작성, 등장인물들의 갈등, 독자의 흥미를 돋우며 사로잡는 문장의 기교들을 정규 수업을 통해 배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스스로의 체험이나 독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창조적

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섬세한 기교들도 이때 체득한다. 완성한 자기 작품의 완벽성을 위한 철저한 문법적 정확성, 8 품사들의 옳은 용법, 구문의 규칙이 통제하는 여러 부분들에서, 교사의 지도로 최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9~12 학년의 최종적인 학습 목표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듣기, 말하기 능력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9~12 학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교적 마당을 비롯하여 공식적인 집회 등을 찾아 연사들의 전문적인 기법들을 찾아내고 특히 연사의 “목소리 조정”의 기교까지도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은 격려를 받는다. 이런 훈련을 위해서는 교실에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교사의 지도 하에 배우기도 한다.

지금까지, ‘PreK(유치원 입학 이전)~1 학년’ 단계부터 ‘9~12 학년’ 단계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교육 과정을 반복하여 포함시키면서도 점차적으로 교육 내용이 복잡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한다면 유치원 입학 이전부터 12학년까지의 기간에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받아야 할 학습 과정의 초석을 깔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입학 전에 학생들은 9~12 학년의 기간에 대학에서의 수업 과정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9~12 학년의 기간에 교사들이 담당했어야 할 책임 아닌 책임을 대학이 지고 있다는 것을 명기하고 싶다. 그 이유를 다음에 간단히 적기로 한다.

(바) 대학: 9~12 학년까지의 성적, 학과목 담당 교사·생활 지도 교사의 추천서, SAT(Scholastic Aptitude Test,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비슷한 시험임)의 성적을 거쳐 들어온 대학 신입생들은 읽고 쓰는 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진다는 생각을 전통적으로 해 왔으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겨 오늘날의 많은 대학들에서는 신입생의 필수 과목의 하나로 Intensive Writing(집중적으로 글쓰기)을 첫 학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

은 자기 나라의 말을 사용하여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미국의 국가적 시책에 부응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쓰기(작문)” 훈련을 위한 이런 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에도 여전히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이들을 마지막으로 돕는다는 목적으로 COLLEGE WRITING CENTER(대학 작문 센터, 대학 부설 문장상담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중 내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약을 하여 비공식적인 1대1의 작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작문을 지도하는 사람은 대학 재학 중인 상급학년(3~4년) 영어 전공의 학생들 중에서 교수가 선택한 학생들이다. 우리 대학 ---미국 뉴욕주립대---의 자랑거리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의 문장상담소(WRITING CENTER)이다. 이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소감을 들으면 모두 한결같이 성공담이다.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떨까? 자기 나라의 말하면서도 읽기와 쓰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사회인들을 위한 도움의 마당은 과연 있는 것일까?

(사) 일반 사회인들을 위한 혜택의 기회: 대학에서 학점 취득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읽기(독해), 쓰기(작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대학에서는 학기 중 또는 여름 방학 동안에 특별 강의 시간을 마련하여 이들이 받고자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능력이 사회 생활·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미국에서의 현실이다. 회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직장에서 취직이나 승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s)이다. 종이 위에 나타난 자기의 학업 성적이 좋다고 해도 자기가 지원 하는 직장에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마당에서 언어 사용 능력이 약하면 성공의 기회가 희박하다는 것이 미국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언어 전문가들이 Literacy Center(읽고 쓰는 능력 배양 센터)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

5. 맺음말

미국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걸친 전반적 언어 능력의 수준이 사회적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저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의 교사들도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협동하고 있다. 한국의 국어 교육에도 이 점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